



메타디자인 교육시스템 : 학연산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홍익대학교 디자인 특성화 프로그램-

김영환 | 홍익대학교 기획처장

I. 시작하는 글

우리나라는 대학의 디자인 관련 졸업생 배출 규모가 매년 3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다 디자이너 양성 배출 국가이나 양적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의력과 실무 능력 및 국제 감각을 겸비한 새로운 디자이너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제품 가격 및 구매 결정 요소로 디자인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월드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할 세계 수준의 디자이너 확보가 국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로 강조(조선일보, 2005. 4. 15)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기관들은 2010년까지 디자인 산업 규모가 GDP의 3%대(2004년 현재 1.2%)인 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조사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온 홍익대학교는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의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으며, 디자인 분야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홍익대학교의 특성화 목표인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메타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새로이 도출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과제'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교의 메타디자인 교육시스템은 외국 디자인 교수, 전문디자이너들이 참가한 동북아 메타디자인 포럼, 2004년 한국 디자인학회 학술대회, ICOGRADA 6, 7, 8회, xD국제청년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 디자인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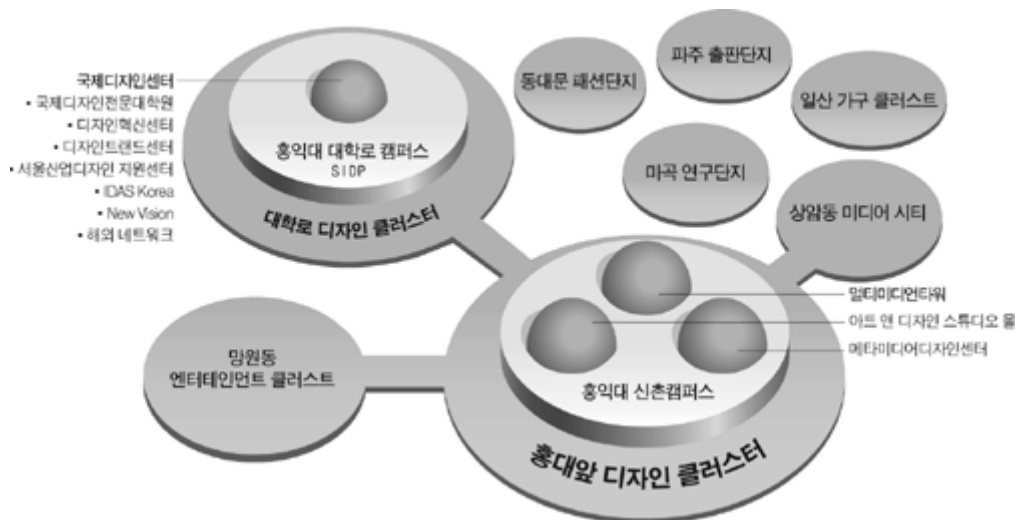
우리는 메타디자인을 '미래의 대학 디자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내포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차세대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의 학·연·산·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본교 특성화 사업의 특징은 실천적 목표의 정립과 이에 따른 과감하고도 집중적인 투자에 있으며,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최근 상당히 많은 발전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2009년까지 동북아 디자인 허브 중심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을 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본교는 최근 완성된 장단기 발전 계획의 21세기 비전으로 "Creative ACE" 양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본교 특성화 사업의 목표가 설정

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국내외 인턴십 확대, 현장 체험 능력 함량을 위한 학·연·산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을 2005~2006년도 사업으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II.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추진 배경

본교는 장단기 발전계획상 21세기 비전을 'Creative ACE' 양성에 두고 학·연·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대학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준비된 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대학의 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국내외 인턴십 확대, 현장 체험 능력 배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이 지난 수년여에 걸친 준비를 거쳐 현재 활발히



(그림 1) 홍익대학교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현황과 계획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로 지정된 홍대앞은 1,952개의 출판사와 100여 개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밀집한 문화콘텐츠 1번가로 외국 관광 가이드에 등록될 정도로 관광 명소화되어 있으며, 2006년 말 완공될 본교 정문관과 향후 조성될 아트 앤 디자인 스튜디오 몰을 중심으로 홍대앞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또한, 대학로 캠퍼스의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 디자인혁신센터(DIC) · 디자인 트렌드센터(IDTC) 중심의 대학로 문화지구 형성, 2007년 15,500명의 국제디자인센터 신축으로 대학로와 동대문 패션단지를 연계하는 대학로 클러스터 구축도 서울시의 문화 산업발전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이같이 홍대앞 디자인 클러스터와 대학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주변 상암 미디



(그림 2) ICCI 교육프로그램

어시티(DMC), 망원동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일산 가구 클러스터,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마곡연구단지를 연계하는 대규모 디자인 폴리스를 구축하여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지니는 비전이다.

Ⅲ. 홍익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 소개

메타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발과 실현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국가 디자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을 이루는 디자인 산학협동 시스템 구축, 국제화된 교육·연구·산학협동을 지원하는 첨단디자인 설비 확충, 그리고 발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특성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대학으로 위상 정립으로 요약되는 본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 수준의 ICCI(Intelligence, Creative, Convergence, Interdisciplinary; 인지, 창작, 융합, 학제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균형 잡힌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월성 확보
- 국제수준의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기반 구축
- 외국 대학 간 교류를 통한 국제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 유학생 유치 및 교류 증진을 통한 교육 선진화
- 학제간 협업 교과과정 개발로 디자인 교육 영역의 확대

- 네별 인증제 도입으로 디자인 리더십 강화
 - * 별 하나 : 외국어 소통능력 키우기
 - * 별 둘 : 타 분야 첨단 기법, 도구 및 학문 간 만남을 통한 창조력 키우기
 - * 별 셋 : 디자인 현장 인턴제 도입, 준비된 인재 키우기
 - * 별 넷 : 디자인 기행 체험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순발력 키우기

2. 국제 기준의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 인프라 구축 및 디자인·공학 연계 교육 강화

- Creative Concept-Design-Engineering을 연계하는 토털 디지털 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
- PACE 센터에 구축된 2,300여 억 원 상당의 디자인 공학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이용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교육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 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과목 개발, 인턴십, 산학과제 수행 등을 통한 학생 취업 지원
- 전 세계 PACE 참여 대학들 간의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환경의 교육을 통해 국제 수준의 디자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모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트레이닝 제공
 - 자동차 부품 및 실제 설계 데이터 확보
 - 기업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 PACE Institution 간 연례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로 정보 교환

<참고>

PACE 센터의 주요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및 역할

- CAS, CAD, CAE, CAM 관련 소프트웨어 : Alias Auto Studio(40), Maya Unlimited(40), UGNX(600), Solid Edge(50), e-Factory(30), Teamcenter Eng(100), LS-Dyna(80), Altair Hyperworks(300), Fluent/Gambit(55), Nastran(100), Akusmod(30), ADAMS(300), AutoWeb Account(1)
-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 하드웨어 : HP xw8000(100), Sun Fire V250(1)

3. 온라인 디자인 교육 모델 개발

- 온라인 교육 환경을 통한 교육 형태의 다각화 및 평생 디자인 교육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겸용 교육 모델 제시를 통한 디자인 분야 사이버 교육 선도
- 현업 디자이너 및 관련자들에게 첨단 디자인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4. 디자인 클러스터-산학협동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영상, 출판 등의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 지자체와 실질적 학연산 협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실험 공간 창출

- 홍대앞 지역 특화 촉진 : 정문 앞 가로 보행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 스튜디오, 공예 공방 거리 조성, 문화 특구로서 국제 예술 문화 명소화
-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40개 이상 기업과 인턴십 교류 2, 3, 4학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1회, 2개월 이상 인턴 경험 기회 부여)
- 디자인 클러스터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및 벤처 창업 · 보육 실시

5.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 디자인플럭스 (design Flux) 구축

- 디자인 교육, 연구, 취업 및 해외업체 동향 관련 국제 온라인 정보 매체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최신 정보 공유 및 해외 취업 인프라 조성, 산학협력활동 지원, 국제 교류 및 협력 시너지 효과 증대
- 한국의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정보 생성, 발신을 통해 동북아 메타디자인 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

6. 졸업생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취업 네트워크 구축

- 취업 다변화를 통한 디자인 교육 경쟁력 확보
- 메타디자인 교육 저변 확대로 한국 디자인 위상 정립
- 교육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교육 경쟁력 확보
- 해외 취업률 확대

“

홍익대학교는 일찍이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특성화 지표를 설정하고 디자인 분야의 특성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들은 대학 전체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속 사업으로 해외연수, 해외취업, 학·연·산·관 협동 등에서 가시적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7. 해외 디자인 대학과 교류 확대 및 디자인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 해외 디자인대학과 글로벌 디자인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정보 교류 기반 조성
- 디자인 중심의 특화된 국제디자인 진람회로 포지셔닝, 디자인 분야 국제적 위상 제고
- 메타디자인 성과물의 수장·관리 인프라 (홍익 메타디자인 헤리티지) 구축
- 디자인 진흥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 디자인 문화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디자인 마인드 확산

8. 메타디자인대학으로 확대 개편

- 디자인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제화 실현을 통한 차세대 디자인 교육의 패러다임 제시
- 대학 및 대학원 디자인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모집단위 광역화 및 전공 선택 다양화에 부응하는 편제 운영시스템 구축

9. 해외 첨단 R&BD센터 및 해외 교류대학과 공동 연구소 설치

- 선진 디자인 비즈니스센터와 교류를 통한 한국 디자인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 국제 교류, 협력 시너지 효과 증대 및 국내외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 동북아 국제 메타디자인 허브 기반 구축
- 산학 인턴십 및 해외 연구소 취업 기회 확대

IV. 나가는 글

홍익대학교는 일찍이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특성화 지표를 설정하고 디자인 분야의 특성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들은 대학 전체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속 사업으로 해외연수, 해외취업, 학·연·산·관 협동 등에서 가시적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국제 경쟁력을 지닌 새로운 디자이너 키우기'라는 큰 목표하에 추진해 온 메타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학·연·산 클

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 지난 3년간 디자인 분야 졸업생 중 유럽, 일본 및 북미지역 등지에 순수 해외 취업을 한 학생의 수만도 36명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도 세계 그래픽디자인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본교 장동련 교수가 당선되는 등 한국 디자인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본교의 특성화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학·연·산·관 협력의 일환으로 홍대 주변의 그래픽, 디지털, 영상, 출판 등의 중소 디자인 업체들과 2005년 12월 본교 대학로 캠퍼스에 개소한 서울시의 (재)서울디자인센터, 본교 미술대학내 MMDI, PACE센터와 기존 디자인 클러스터 협의체(21개 업체)를 상호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매진할 것이다. 이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디자인 특성화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교는 지난 4년간 429억 원에 이르는 자체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전문가 및 산업체 겸임 교원 초빙, 첨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확충 및 첨단화된 전용 공간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xD·Icograda 국제청년디자이너 워크숍, 국제 메

타디자인 포럼, IDAS 국제워크숍 유치 등 국제 디자인 학술 활동과 학제간 공동 강의 및 팀 티칭 강의, 평생 전공 전담 지도 교수제 시행(mentoring system) 취업 현장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실무디자이너 초청 강연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표현교육 중심의 기존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학제간 융합과 인지 교육을 강화한 메타디자인 ICCI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그 수월성이 인정되는 특성화된 교육을 계속 실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 모두의 성과 노력을 모을 것이다. **대학교육**

김영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금속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 대학 부설 Earth Engineering Center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1987년부터 홍익대학교 신소재 화학시스템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현재 기획연구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